

청년부
HB요리사와
함께한 청년주일

말씀으로 버무린 하나 됨의 맛

지난 5월 17일 주일 오후, 지하 식당에서는 평소와 달리 다양한 식재료와 청년들의 익사지컬한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청년주일을 맞아 아주 특별한 기획으로 준비된 요리경연대회, 바로 'HB요리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는 요리사들의 등장

이번 행사는 최근 대중적으로 사랑받은 요리 경연 프로그램의 형식에서 착안했지만, 우리 청년부에게는 'HB요리사' 즉, 'History Builder 요리사'로 곧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세워가는 청년들'이라는 귀한 의미를 담고 있어서 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행사를 기획하고 광고할 때만 해도 "과연 청년들이 얼마나 참여할까?" "요리에 관심을 가질까?" 하는 작은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행사가 시작되자 예상보다 많은 약 170명의 청년들이 함께하였으며, 청년주일의 자리는 뜨거운 기대와 기쁨으로 채워졌습니다.

말씀 위에 버무린 '청년들'의 레시피

이번 행사를 준비하며 임원단이 마음에 품은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절이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이 말씀처럼 이번 행사의 핵심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과 은사를 가진 청년들이 하나의 셀로 묶이고, 다시 하나의 조를 이루어 함께 요리하는 과정 자체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셀별로 구성된 총 12개의 조는 된장찌개, 감자전, 비빔국수 세 가지의 요리 메뉴를 두고, 메뉴별 네 개의 조로 나뉘어 치열하면서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경연을 펼쳤습니다. 임원단에서 제공한 공용 재료 외에도 각 조가 정성껏 준비해 온 '비장의 재료'들이 등장할 때마다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4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누군가는 현란한 손놀림으로 재료를 손질하고, 누군가는 능숙한 노하우로 불을 조절했으며, 또 누군가는 팀원들을 독려하며 시간을 체크했습니다. 도마 위의 경쾌한 칼질 소리와 보글보글 찌개가 끓는 소리, 지글지글 튀겨지는 고소한 냄새가 식당을 가득 채우고 청년들의 웃음소리는 그 자체로 아름다운 화음이었습니다. 혼자라면 만들기 어려웠을 창의적이고 감각적인 요리들이 '한마음' 안에서 하나둘 완성되어 갔습니다.

공정한 심사, 그리고 더 아름다웠던 섬김

요리가 완성된 순서대로 종을 올린 뒤 심사위원단 앞에 놓였습니다. 박성철 목사님, 김세연 목사님, 김미선 권사님, 은선희 권사님으로 구성된

4인의 심사위원단은 비주얼부터 맛, 그리고 창의성까지 꼼꼼하게 살피며 따뜻하면서도 세심한 평가는 청년들의 마음을 긴장하게 하면서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요리가 훌륭했지만 순위가 발표되는 순간, 청년들의 반응은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진심으로 참여했기에 환호와 아쉬움의 함성이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순위 발표 이후였습니다. 대회의 규칙에 따라 각 메뉴별 '뒤에서 1등'을 한 팀이 뒷정리를 맡게 되었는데, 누구 하나 찡그리는 기색 없이 기쁜 마음으로 고무장갑을 끼고 식당을 정리했습니다. 승패를 떠나 서로를 배려하고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섬기는 청년들의 모습 속에서 청년주일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세대를 넘어 더 깊어진 교제

경연의 열기가 지나간 뒤에는 또 다른 은혜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HB요리사'가 진행되는 동안 부장단에서는 땀 흘려 정성껏 삼겹살을 초벌해 주셨고, 이어 부장단과 청년들이 함께하는 바비큐 식탁 교제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청년주일은 예상보다 풍성한 참여로 감동을 더했을 뿐 아니라, 늘 뒤에서 묵묵히 기도해 주시던 부장단과 청년들이 한자리에서 깊이 어우러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최민기 부장님의 시작기도로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고, 음식을 준비해 주신 부장단의 섬김을 통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얼마나 청년들을 사랑하고 기도해 오셨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로 음식을 권하고, 한 주간의 삶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는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단단하게 연결된 공동체인지를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행사는 끝났지만, 식당을 가득 채웠던 온기는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귀한 행사를 기획하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모든 손길과, 기쁨으로 동참해 준 170명의 청년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HB요리사'를 통해 맛본 하나 됨의 기쁨이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믿음의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박경찬 청년 / 청년부 회장

